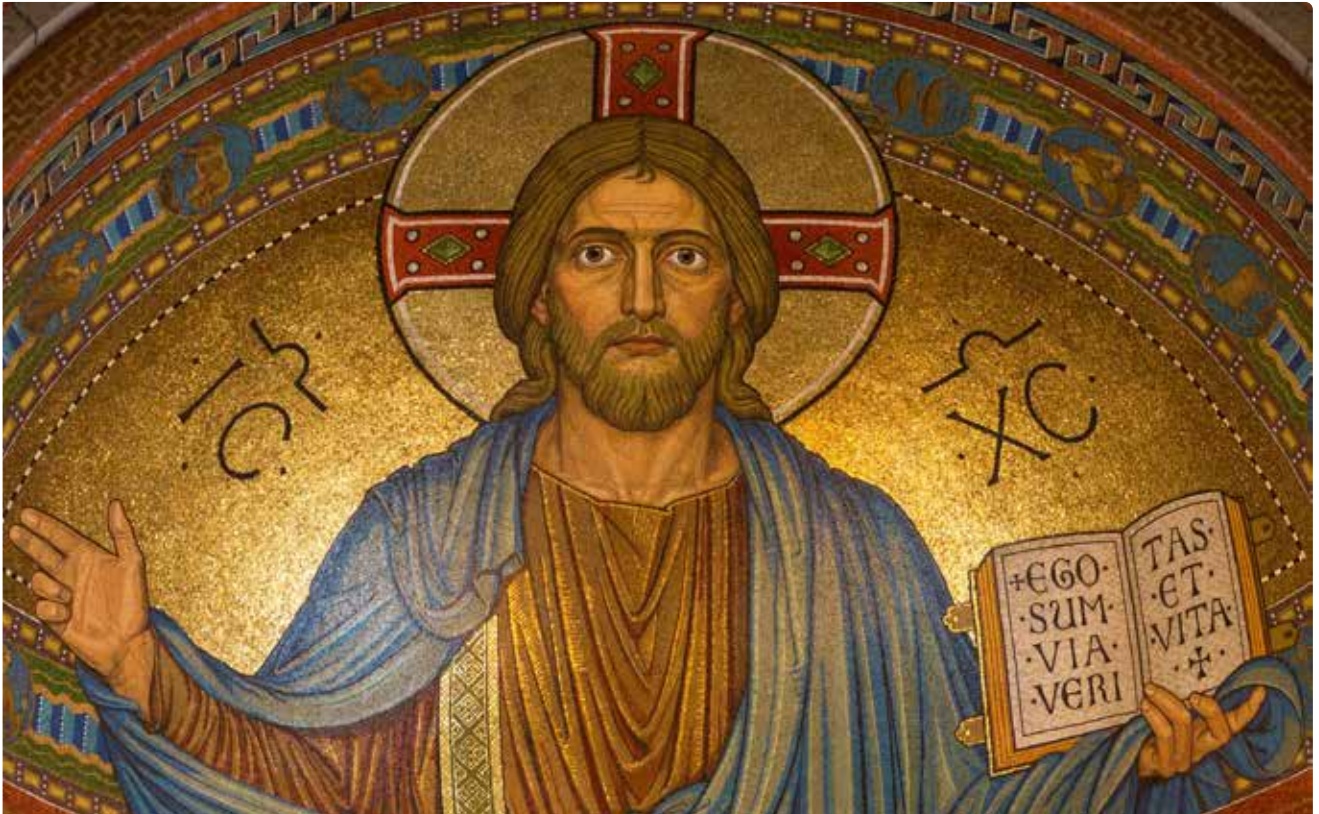


민천주보

제2625호

2020년 7월 12일 | 연중 제15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메시아 예수〉

입당송 | 시편 17(16), 15 참조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낼 때 흠족하리이다.

제1독서 | 이사 55, 10-11

화답송 | 시편 65(64), 10-11, 12-13, 14 (루카 8, 8)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

제2독서 | 로마 8, 18-23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 마태 13, 1-23 (또는 13, 1-9)

영성체송 | 시편 84(83), 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교구장 사목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루카 11, 28)

이 주의 성경쓰기표

요 일	12 (주일)	13 (월)	14 (화)	15 (수)	16 (목)	17 (금)	18 (토)
성경 / 장	로마 11, 25-11, 36	12, 1-12, 21	13, 1-13, 14	14, 1-14, 12	14, 13-14, 23	15, 1-15, 13	15, 14-15, 33
확 인							

성경을 읽으며

1.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인가? 단일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여쭙어보면 교우님들 중 열의 아홉은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이민족들이 끊임없이 교류하여왔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종교에서 단일성을 추구했고, 종교를 수호하기 위해 우상숭배 척결 등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확장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민족을 확실히 구분 짓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이냐? 구약의 이스라엘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문자로 기록했던 이들은 사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확장성보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이스라엘과 이민족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이민족들을 향해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대한민국을 단일 민족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 국가라고 배웠던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단일 민족 국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단일 민족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와 이스라엘을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을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은 성경의 묵상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글자로 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물론 당연히 글자로 된 부분을 제대로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글자만 읽어들인다면 과연 성경을 완전히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말씀’이라고 해왔습니다. 분명 성경의 글자처럼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은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 말씀에는 ‘말 있는 말씀’도 있고 ‘말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있는 말씀’은 알겠지만 ‘말 없는 말씀’은 생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진수는 ‘말 없는 말씀’, 다시 말해 ‘행간’에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깨닫기 위해 노력하면 더 큰 결실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는 성경의 행간을 열어주는 열쇠로 또 행간으로 나아가는 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들의 행간에서도 말씀을 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종교신앙의 처음에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분명히 가려 혼란과 오류를 수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더 성장하고 완성되기 위해 종교를 뛰어넘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교에 너무 철저하면 자기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배척하기도 합니다. 종교는 정신의 확장을 막고 분열을 고착시키기도 합니다. 종교신앙에 대한 이해가 고정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천주교 신앙은 사람의 정신을 확장하고 분열을 뛰어넘게 합니다. 또 고정된 생각에 머물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할 수 있습니다. 창조 혹은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발상의 전환은 이전에 머물던 그 편안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신앙은 참된 신앙을 위해 우리에게 익숙했던 신앙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또 신앙은 참된 신앙을 위해 우리에게 익숙했던 신앙을 뛰어넘으라고 있습니다.

4. 천주교 신앙은 돈과 의식주처럼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종교에 목숨을 거는 극단적인 신봉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질문은 결코 아니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종교 없이는 죽어도 못 사는 것’과 ‘종교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중 과연 어떤 것이 낫습니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위 질문들이 그동안 너무 익숙했거나 또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믿음’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을 새로이 바라보고 업그레이드하여 급변하는 시대에도 슬기롭게 살아내는 신앙을 건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 마르코 신부 · 필자의 요청에 의해 익명으로 게재됩니다.

이 주의 암송구절



주님을 경외함은 수용의 시작이고

지혜는 그분의 사랑을 얻는다. (잠19,18)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 - 두 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작품

루카 복음서는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고 짜임새 있는 작품입니다. 복음서의 원어인 그리스어의 문체가 수려하고, 어휘도 매우 풍부하며, 문학적 기교면에서도 다른 복음서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루카 복음서는 초대 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사도행전'(네 복음서 다음에 위치)과 하나의 작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저자가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제자들의 선교 역사'를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로 구상했다는 것입니다.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저술 목적을 소개하는 머리말이 각각 등장하는데(루카 1,1-4; 사도 1,1-5), 여기서 두 작품 모두 "테오필로스"라는 어떤 인물에게 헌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루카 1,3: "존귀하신 테오필로스 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사도 1,1: "테오필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사도 1,1이 언급하는 "첫 번째 책"은 바로 루카 복음서를 가리킵니다.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분의 승천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무리되는데(루카 24,49-53),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사도 1,6-11). '첫 번째 책' 마지막 부분과 '두 번째 책' 시작 부분의 내용이 중첩되는 것은 두 작품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자 하는 저자의 문학적 의도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하나로 작품으로 생각할 때,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수난·죽음·부활·승천)가 완성된 곳이며 동시에 사도들의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루카 복음서가 '갈릴래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을 담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사도들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오랜 전통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을 동반한 의사

출신의 "루카"를 지목합니다(참조: 콜로 4,14; 2티모 4,11; 필레 24).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저자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바오로 사도의 선교 동반자였던 것처럼 기술합니다(사도 16,10-17; 20,5-15; 21,1-18; 27,1-28,26).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우리"라는 표현이 이야기의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 수완일 뿐, 그것이 저자가 바오로 사도의 선교 동반자였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에서도 그랬듯이 -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저자의 모습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두 작품에서 드러나는 유려한 그리스어 문체와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을 생각할 때, 저자는 그리스어에 굉장히 능통하고 문학적 소양이 높으며, 심지어 구약성경과 유대인들의 관습에도 상당한 지식을 갖춘 어떤 이방계 그리스도인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는 기원전 80~90년경, "테오필로스"라는 인물을 비롯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하나의 작품으로 함께 읽게 되면, 우리는 저자가 갖고 있는 역사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요한 세례자까지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시대, 즉 율법과 예언서의 시대이며(루카 16,16) 구원을 향한 약속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가 지상에서 활동하신 기간이 바로 구원의 정점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루카 복음은 이 두 번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온 순간(사도 2장)부터 교회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세 번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교회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데, 사도들은 이를 바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며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이 시기와 단절없이 이어지는 교회의 시대를 다루는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천 사도 요한 신부 ·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창조-“보시니 좋았다”(창세 1,10)

창고는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창고는 무언가를 쌓아 놓는 곳일 때가 많다. 쓰다 남은 것, 필요가 없는 것, 버리기에는 아깝다고 느껴지는 것,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 둘 창고에 넣는다. 그런데 창고를 열어보니 ‘창고에 넣었다’라는 표현보다 ‘창고에 처박아 두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마음을 한번 크게 먹고 날을 잡았다.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물건들을 모두 빼내고 정리에 들어간다. 버릴 건 버리고, 자주 쓸 물건부터 자주 쓰지 않을 물건까지 활용도에 맞추어 창고를 정리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마무리된 창고 정리. 정리한 창고를 열어본다. ‘Before’와 ‘After’를 사진으로 찍었으면 할 만큼 깔끔하게 변했다. 마음이 뿌듯했다.

정리되지 않은 창고의 어지러움에는 비길 수 없는, 아무것도 없이 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무(無)의 상태가 있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어둠만이 자리했다. ‘빛이 생겨라’,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라’, ‘푸른 짙이 돌아나라’. 그렇게 어둠에 빛이, 꼴이 없던 곳에 질서를 갖춘 모양이 생겨났다. 어지럽게 널브러진 창고를 정리한 뿌듯함 정도도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싶을 진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하나씩 하나씩 당신 사랑의 창조물들을 채워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느끼신 뿌듯함은 단지 ‘좋았다’라는 몇 글자의 인간의 언어로 전부 표현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좋았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 뿌듯함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하느님의 창조의 기쁨과 우리의 창고 정리의 뿌듯함에는 큰 차이가 있다.

‘버리는 것이 정리의 시작!’이라는 말을 모토로 창고 정리를 시작했다. 필요 없는 것을 골라냈고, 그렇게 쓸모없는 것은 버렸다. 하지만 하느님 창조는 버릴 것과 쓸모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은 무엇인가를 버리거나 ‘쓸모없음’을 낙인찍고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 ‘쓸모없는 것과 쓸모 있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어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좋은 하느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때문에 좋은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은 좋은 것, 바로 선(善)에서 창조된 모든 만물은 선으로, 그리고 선을 향하여 창조되었다. 하느님께서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는 쓰다 남은 것도, 필요가 없는 것도, 버리기에는 아깝다고 느껴지는 것도,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도 없는, 당신의 사랑 안에 질서 지어진 것들이다.

‘물질 세계는 악한 세계요, 영적인 세계는 선의 세계’라며 물질과 영의 두 차원을 구분 짓는 이들이 있다. 물질 세계를 쫓아 살아가면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불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 나아가 하느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선한 사람이라고 초대하는 집단이 있다. 자신의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선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 자신의 집단에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악한 사람이며, 하느님은 그런 그들과 관계를 끊어 버리시고 그들은 하느님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며 엄포를 놓는다. 악의 세계와 선의 세계, 좋은 것과 나쁜 것,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쓸모 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 흰색과 검은색. 우리가 쉽게 나누어 생각했던 그것을 이용한다. 마치 하느님께서도 그것을 구분하시는 것처럼 말이다.

하루하루를 옛세 동안 반복하며 당신 손에서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뿌듯해하셨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 만들지도, 쓸모 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을 나누어 쓸모없는 것을 보고 후회하며 그것을 버리지도 않으셨다. 하느님의 창조는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느님께서 작은 하나라도 존재하는 것들을 만들고자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기 위함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은 창고에 널브러져 쓸모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보금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분 생명을 나누어 받은 소중한 그분의 것임을 잊지 말자.

교구장 동정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영명축일 미사



6월 24일(수) 17시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영명축일 축하 미사가 봉헌되었다. 강론에서 정신철 주교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언자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초점을 두고,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 묵상한다”며, “그러나 그것 이전에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예언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그 충만한 말씀을 기쁘게 세상에 전파한다는 사실을 묵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축하식에서는 사제단과 교구 직원들의 기도를 담은 영적예물과 물적예물, 꽃다발을 전달하며 영명축일을 축하하였다. 답사를 통해 정신철 주교는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교구 행사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미사



6월 25일(목) 11시 교구 성모 순례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미사가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와 교구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다. 강론에서 정신철 주교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과 독일군이 휴전하고 함께 성탄을 축하한 일화를 언급하며 “그들이 한마음이 된 것은 하느님이 자신들에게 준 인간 본성에 귀를 기울인 까닭”이라고 밝히며,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인간을 하나로 만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반도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보고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서로 불목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자”고 권고하였다. 이날 미사를 통해 갈등으로 서로의 벽을 쌓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였다.

교구 행사

연수성당 장학회-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장학금 전달식



6월 28일(주일) 12시 연수성당 장학회는 연수 성당(=주임 안규도 도미니코 신부)에서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 이상희 마르티노 신부)를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 박성수 사도요한 신부와 연수 성당 안규도 주임신부, 신회섭 암브로시오 보좌신부를 비롯하여 연수성당 장학회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전달식에서 안규도 신부는 “청소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연수성당 장학회에서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에 후원하게 되어 더 많은 청소년들을 후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인사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 박성수 신부는 “연수성당 장학회의 장학금 전달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좋은 취지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밝히며 전달식을 마쳤다. 한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는 지역사회 및 본당 사회복지분과를 통해 추천받은 저소득층 청소년 중 3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비에 보탬이 되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계획이다.

교구 알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밤 9시에 주모경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알림

사제 인사 발령

2020.06.30

성명	계시던 곳	가시는 곳
김현태	국제성모병원장	청수 주임
김현수	청수 주임	국제성모병원장

후원 안내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성지 조성 후원 안내

신헌 131-016-645915 (재)인천교구천주교유지재단
 • 성지 완성 후 후원 회원님의 이름을 성전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 성지개발 위원회 032-765-6916

청소년사목국 소식

나도 실천하는 신앙인 2

어떤 행사인가요?

'주일 복음 말씀'을 필사하며 **신앙습관**도 기르고, 한 글자당 5원씩 기부도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인천교구의 **유소년, 청소년, 교리교사, 청년, 청장년** 모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월 15일부터 기부금(200만원) 달성시 까지

기부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한글자=5원' 씩 기부된 금액은 필리핀 바기오 국제자원봉사활동 데이케어센터의 필요시설 구비에 쓰일 예정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 ✎ 작성일 기준 주일 복음 말씀을 필사한다.
- ✎ 필사지 아래에 본당, 학년(or 소속), 이름, 세례명을 적는다.
(꼭 적어주셔야 기부명단에 기록됩니다.)
-개인, 단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 인증샷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SNS가 없는 친구들 필사도 함께 올려줘도 됩니다!!)
- 본당에서 다 함께 올려줘도
- ✎ 사진에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cainyouth** 태그와 함께 지정된 해시태그도 작성한다.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나도실천하는신앙인 #나실신
- 지목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참여



카톨릭카노 Catholico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요?

반복된 일상에 점점 지쳐 무기력해지고,
바쁜 일에 치여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소중한 나를 위하여,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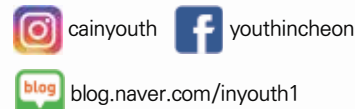
한 주를 시작하며 힘과 위로, 격려, 기도가 필요한 모두에게
향기로운 **가톨릭카노** 한 잔을 선물할게요.



『Day by Day with the Catechism』의
교리, 묵상, 기도 내용이 청소년사목국
SNS를 통해 **매주 월요일** 업로드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같이 티타임 하고싶은 사람들 모두 **@태그** 해서 함께해요~

청소년사목국 SNS



YouTube 청년·청장년부



행사 안내 및 모집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 글·그림대회 (비글비글)

- 마감: 7/15(수) *참가자 상품 증정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사목국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종교시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 개인물품(책 등) 사용
-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 접촉·대면 모임 자제
- 고위험군(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

교구청 알림

◆ 무료노동상담

실업급여, 체불임금, 산업재해, 비정규직 차별 등
교구 노동사목 ☎ 인천 032-502-3009
부천·시흥·김포 032-679-1308

교육 | 피정

◆ 지혜의 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교육일정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월: 2, 4주-하느님 자비 월요 피정
화, 수: 성막과 십자가 치유 말씀 강의
목: 찬양 치유 피정
금: 성시간과 함께 하는 철야 기도회
주일: 말씀 치유 낮 기도회
☎ 010-5454-1871, 010-3248-9705

◆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 02-2274-1843, 4 / cdcc.co.kr

◆ 교구 예비신자 피정

때: 3차 8/8(토) 9:30~15:30
곳: 복자 이 안나 홀(교구 공문참조)
☎ 노들담교리교재연구소 010-2123-6319

◆ 청년 신약성경 통독 피정

때·곳: 7/25(토) 서울 목동 본원
☎ 마리아의 딸 수도회 010-6595-0280

◆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피정: 7/17(금)~25(토), 8/4(화)~12(수)
효소단식 피정: 7/30(목)~8/2(주일)
하계 피정: 8/7(금)~9(주일)
☎ 010-3340-0201

◆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 2: 8/15(토)~16(주일)
3박 4: 7/27(월)~30(목), 8/1(토)~4(화·청년)
8박 9: 8/5(수)~13(목), 9/15(화)~23(수)
40일: 10/6(화)~11/14(토)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 010-4906-5722, 031-953-6932

◆ 예수회센터 영성강좌(9월 개강)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죽음관을 묻다
매주(화) 14:00~16:00 서명원 신부
·영성의 향기: 근·현대 영성의 거장들
(수) 10:00~12:00 심종혁 신부 (10회 과정)
·가톨릭 사회교리
매주(금) 14:00~16:00 전주희 수사
☎ 02-3272-7733 / http://center.jesuits.kr/

미사 | 행사

◆ 성지개발 7월 후원회 미사

때·곳: 7/16 15:00 만수1동 성당
미사 후 이승훈 베드로 묘역 도보순례
☎ 032-765-6916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곳: 7/16(목) 14:00 답동 주교좌 성당
☎ 02-3673-2525
성소문의: 김낙윤 신부 010-8715-2846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곳: 7/14(화) 14:30 부평2동 성당
☎ 032-529-9621

◆ 들꽃마을 인천 영성강의 및 미사

때·곳: 7/13(월) 14:00 사회사목센터 B1
지도: 들꽃마을을 최영배 비오 신부
(영성강의, 미사집전)
☎ 054-955-4133~4

◆ 한국평협 가정 선교 체험 공모전

대상: 관심 있는 모든 신자
주제: 가족 간 선교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한 후기
형식: A4 10포인트 2~3장
(200자 원고지 기준 20~30매)
접수: 8/31~9/29, 메일 또는 우편 접수
☎ 02-777-2013
- 시상 및 자세한 공모 내용:
www.clak.or.kr 또는 모바일앱 [한국평협] 참조

모집 | 일반

◆ 우리농 직매장 직원 채용

답동 우리농 친환경 농산물 판매, 계산
평일: 10:00~15:00,
15:00~20:00(시간외근무 근무)
토: 10:00~20:00(격주 근무)
☎ 사무국 032-766-0565

◆ 가톨릭 여성심리상담소

우울, 불안, 대인관계, 가족갈등
여성의 전화 상담 (월~금) 10:00~16:00
☎ 02-990-9366

◆ 커피 바리스타 교육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주1회~12주]
담당: 이경훈 신부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 010-9040-8306, 010-2511-6845
http://club.catholic.or.kr/barista

◆ 박문 개교 120주년 기념 행사 참여 동문 모집

행사 1: 라떼는 말이야
그 시절 박문 학교 생활 들려주기
행사 2: 지금은 말이야
본인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진로교육
참여 방법: 실시간 화상수업
☎ 032-810-8595

◆ 해외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 02-2258-8983
www.oakinternational.co.kr

◆ 양업고등학교 가톨릭 좋은학교 연수

때: 8/1(토) 10:30~21:00
대상: Quality School에 관심있는
학부모, 교사, 일반인
접수: 학교 홈페이지(7/20부터 선착순)
☎ 043-260-5076
(2021학년도 입학전형 안내도 겸함)

순례 | 기타

◆ 아곱 수도원 순례

때: 10/28~31 [4일]
곳: 까리따스, 트라피스트, 올리베타노(속소)
제주교구: 9/9~12(코로나로 변경가능)
☎ 010-3712-8119

◆ 국내 성지 순례

때: 7/25 사당역 출발
원주교구: 대안공소(미사) 원동 주교좌 성당,
강원감영, 용소막 성당, 묘재, 배론성지,
풍수원 성당 / 3만 5천원(조·중식 제공)
☎ 바오로 성지순례회 010-9200-3532

◆ 제주도 관광 안내

제주 운전기사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 064-758-6476, 010-4566-6476

성소모임

◆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때: 7/19 13:30~16:30
곳: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미아리 본원)
☎ 010-9816-0072 / pddm.or.kr

◆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때: 7/18(토) 14:00
곳: 개화동 수도원(서울)
☎ 010-3800-1579